

재호 교민을 위한 상담치료 그룹

‘고향을 떠나 타국살기’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

타국으로의 이주는 많은 용기와 결단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. 따라서 이민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클 수 있습니다.

CESPHN (Central Eastern Sydney Primary Health Network)은 그룹당 6-10명의 시드니 거주 한인교민들에게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

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
- 메디케어를 통한 심리상담 보조 서비스(PSS)가 가능한 분
- 우울증이나 불안증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신 분

이 그룹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타국으로의 이주가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인식하기
- 감정적, 심리적, 사회적인 만족감 개선
- 개인의 소속감, 성취감 그리고 문화정체성을 이해하기
- 인간관계, 일, 학업, 건강, 재정적인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개발

날짜: 2017년 10월 7일 - 11월 25일 매주 토요일

여성 그룹 모임: 오전 11 - 오후 1.30

남성 그룹 모임 : 오후 2.30 - 5 시

**장소: Sydney Integrative Psychology
Suite 1a, level 9, 428 George Street, Sydney
(The Dymocks Building)**

더 자세한 문의는 상담사 사라에게 핸드폰

0425 319 248 혹은 이메일 **sarahpak@iprimus.com.au**로 연락 바랍니다.

자격이 되시는 분은 담당의사나 CESPHN PSS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리퍼럴 받을 수 있습니다.

작성된 참여 신청 리퍼럴을 CESPHN intake 팩스 (02) 9330 9988 로 보내 주십시오.

